

공약과제 적극추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GIST 이흥노 교수

2017년 10월 24일

지난 컬럼을 통해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기술의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은 단축하고,
효율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 안정망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지역에서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였습니다.
GIST는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였고,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타운”이란 공약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7월에 공포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국정운영계획서에는 광주를
문화융합 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 조성
주민참여 형 도시혁신사업 등
스마트기술로 노후화 된 지역을 혁신하는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소속한 개별 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지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시 재생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별 도시의 특색이 강조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때
국가의 경쟁력이 커지는 Glocalization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모바일 등의 스마트기술이
산업, 경제, 고용구조,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빠르고 깊은 변화를 초래하는 움직임을 일컫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스마트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매을 클 것으로 예측 됩니다.

가령, 도시의 가로등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주요 도로의 교통량을 파악하여,
적시에 신호등을 제어하면,
교통 흐름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도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빌딩,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기술의 기본 개념입니다.

GIST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캠퍼스 형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광주전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방 공유 형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의 대학, 특구본부,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